

석유공사, 거제도 벙커C유 방제작업 나서



석유공사가 거제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벙커C유 유출사고의 방제작업에 나섰다.

석유공사 직원들은 거제시 일운면 외현리 예구마을 해안에 밀려든 벙커C유 제거를 위해 현지 주민들과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
앞서 8월12일 밤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유조선이 충돌함에 따라 벙커C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0/08/17>